

강진 한바퀴 추억 한가득... 오감만족 낭만에 빠져든다

오감통·마량놀이 수산시장 등 4대 新관광 프로젝트 빛 발해 보고 즐기고 느끼고 체험까지 전국서 관광객 발길 줄이어

‘남도답사 1번지’로 통하는 강진군이 전남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감성 문화관광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머무르는 강진 관광’을 목표로 강진 오감통과 마량놀이 수산시장, 감성여행 FU-SO체협, 초록민들레 직거래 등 4대 신(新)관광 프로젝트를 내세운 것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강진군은 특히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올해 ‘마케팅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진을 대표하는 다산초당, 영랑생가, 고려청자박물관, 한정식 등을 기본으로, 가고싶은 섬 가우도와 백운동 정원, 한국민화뮤지엄, V-랜드, 초당림 등 새로운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미항 마량항을 토요일 수산시장으로 변모시킨 ‘마량놀이수산시장’은 지난 5월 개장 이후 무려 12만명이 다녀가면서 매출액만 10억원이 넘어섰다. 농가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시골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신 농촌체험인 FU-SO (Feeling up, Stress off)체협은 전국에서 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강진관광이 새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강진명소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도 전남에서 유일하게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인기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강진관광산업의 숨은 저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강진군은 관광산업을 미래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강진군은 특히 관광과 전통시장~음악~음식을 결합한 ‘강진 오감통’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는 데 성공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된 오감통은 녹음시설과 공연장, 게스트 하우스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각종 공연 등을 통해 재래시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지역민의 소득상승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미래관광은 단순한 구경에서 그치지 않고, 방문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를 소핑하는 감성여행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진군은 이 같은 신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모든 것을 마케팅화해 지역민의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올해 가장 뜨는 강진 명소 7

1 백운동 정원
월출산에 있는 백운동(白雲洞)정원은 담양 소재인, 보길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조선중기 선비들의 은거문화에 알려주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다산선생도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다고 한다.

2 전라병영성 및 하멜기념관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육군 총지휘본부와 있고, 그 옆에 우리나라를 서양에 최초로 알린 핸드릭 하멜을 기리는 하멜기념관이 있다.

3 V-랜드와 초당림
강진 남성리 고성골 보은산 V-랜드는 물놀이장 주변에 숲 탐방로 등이 조성돼 있고 고성사와 영랑생가 등 문화재도 접해 있는 힐링공간이자 종합휴양지다. 칠랑면 명주리에 있는 초당림은 총 960ha 규모로, 백제약품 설립자인 김기문 회장이 50여년간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 숲으로 최근 일부 개방됐다.

4 강진오감통
3M(Music·음악, Meal·음식, Market·시장)이 어우러진 강진 오감통은 음악창작소와 먹을거리 장터, 한정식 체험관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이다.

5 한국민화뮤지엄
선조의 꿈과 소망을 만나는 민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4D 민화라이더 등 각종 체험거리는 물론 성인을 위한 '19금' 춘화전시실도 있다.

6 가고싶은 섬 가우도
출렁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가우도는 산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트레킹 명소다. 가족과 연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7 마량놀이수산시장
전남대표 미항인 마량항은 매주 토요일이면 3회(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 3무(수입산 NO, 비브리온 NO, 바가지 요금 NO)를 앞세워 꼭 한번 방문해야 할 관광명소가 됐다.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남 광 222-9440	
정읍 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부 광 652-0175	
		동 명 264-2012	
		동 명 222-9054	
		문 흥 225-6001	
		백 운 267-4748	
		봉 선 673-4698	
		북 광 675-6530	
		상 무 525-3761	
		서 광 372-2352	
		송 서 369-0583	
		신 안 675-6805	
		양 산 512-1732	
		오 치 571-7658	
		우 봉 266-7601	
		운 천 522-7752	
		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충 흥 224-6804	
		진 달 673-1600	
		첨 단 973-2900	
		충 장 224-8212	
		치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